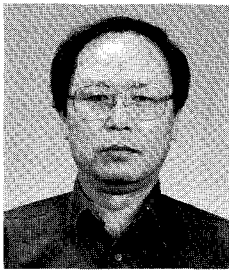


## 하반기 채란업 경기 다소 안정세 예상



구 천 석  
(자훈농장 대표)

**생**산과잉으로 인해 양파값이 폭락하여 수확을 포기한 채 트랙터로 양파밭을 갈아엎어 버리는 장면이 TV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채란업계도 본격적인 여름철 비수기를 맞이하여 과잉생산되는 계란을 과거와 같이 땅을 파고 묻어 버리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채란업계에서는 계란값의 환갑날이라고도 말한다. 요즈음은 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가 겨울철에도 생산되어 사시사철 딸기를 맛볼 수가 있지만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전에는 딸기가 시장에 선을 보이는 때가 되면 계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기에 그러한 표현이 나왔던 것 같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햇과일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계란은 보관기간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줄어 계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해는 봄철동안 계란 가격이 대체적으로 생산원가를 웃돌아 채란업계는 호황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특히 계란을 판매하는 계란유통상인들이 보기에는 채란업자에게 세상돈이 다 모이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요즘같이 계란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락하면서 할인폭도 커질 때면 계란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눈에는 계란 상인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계란 값이 폭락할 때면 계란유통상인도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 떼돈을 벌기는 커녕 적자를 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 한다. 이에 견준다면 채란농장도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돈을 벌기 무섭게 부채를 갚아야 한다.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와 방역비를 보면 최근 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어떤 농장을 막론하고 질병이 끊이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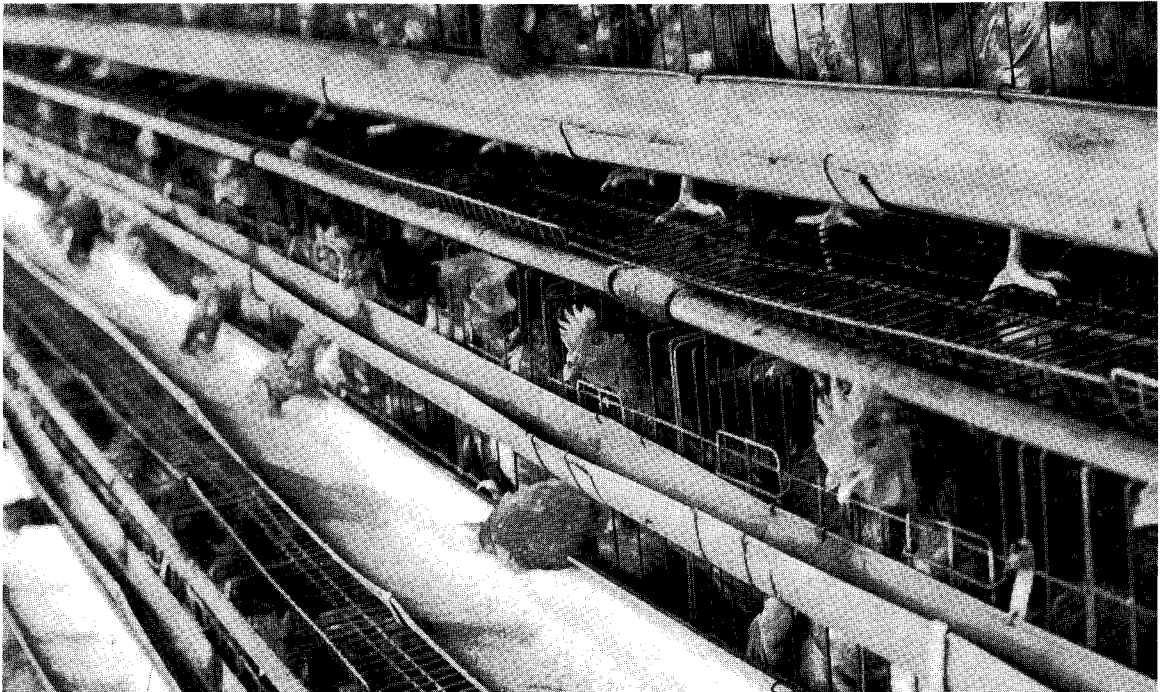
적자 면하기에 급급한 업계가 어찌 우리 양계산업 뿐이겠는가 마는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친다면 발전적인 양계산업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심정에서 계란가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앞으로 계란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것도 그럴것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심하고 심지어는 도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군이 갑자기 도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당하는 농장도 많이 있으며 계란시장에도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 부화장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3, 4월 보다 5월을 거쳐 6, 7월에는 계란 생산량이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8월을 거쳐 9, 10

월에는 6, 7월보다 계란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대한양계협회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계란 생산량 동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양계협회의 산란실용계 병아리 입추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 5, 6, 7월에는 300만수 미만의 병아리가 입식되어 2001년도 2, 3, 4월의 계란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0년도 10, 11월에는 각각 380만수라는 금년에 볼 수 없었던 수량의 병아리가 입식되어 6, 7월의 계란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잉물량을 비축하여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어서 계란가격 하락을 더욱더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도 12월에는 208만수, 2001년





도 1월에는 176만수, 2월에는 196만수의 병아리가 입식되어 8월부터는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고 9월에는 더욱 더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 추석 경기와 맞물리면 계란가격은 급속도로 회복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가 10, 11월에도 계속되어 생산비를 웃도는 계란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 행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행운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 한다. 우리 채란업자들은 생산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하절기에 노계를 신계로 교체하는 등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간의 이익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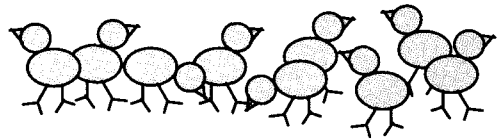
## 종계를 강제환우하면...

종계를 더욱 장기간 사용하여 환우 후 초생추의 생산원가를 150원까지 절감할 수는 있으나 ...

생산되는 초생추의 가끔티푸스

양성율이 높아지고

식란의 살모넬라 오염율을 높입니다.



## 강제환우하지 않는 부화장...

다음 부화장에서는 종계를 강제환우 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양계축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봉산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신진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양지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한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Hy-Line**®